

7080 베이비 붐 세대 단상

우리나라에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소위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른다. 베이부 부모의 가운데에 속한 필자도 초등학교 시절 24학급으로 오전, 이른 오후 그리고 늦은 오후로 3부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내 새로운 학교가 개교하면서 전학을 하게 되었지만 당시 사람은 많고 자원은 한정되다 보니 모든 물자가 모자라기 일쑤였다. 우리 어린 시절의 평균적인 삶은 자린고비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일제 시대에 그리고 6.25전쟁 통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선대들은 자식의 교육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자식들도 못살던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들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대학에 진학했으니 명실공히 7080의 한가운데에 속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민하고 있고 어찌 하면 덜 먹고 살을 빼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로는 자동차로 넘치고 있고 거의 모든 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7080 이공계 출신들은 실력과 성실성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수준으로 만드는데 절대적인 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공계 7080의 활용 고민해야

그러했던 7080들의 은퇴가 시작되었다. 20대 중반부터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년이라는 제도가 이들을 막아선다. 7천 명의 박사를 포함한 2만 여명의 연구자들이 활동하는 연구단지의 경우에도 1955년생이 61세가 되는 2016년부터 정년퇴임으로 인한 또 다른 베이비(?) 부모들의 수난시대가 예고된다. 그런데 자식들은 졸업을 늦추고, 취업을 늦추고, 결혼을 늦춘다. 아직도 돈이 들어갈 데가 많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별로 없고 자식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의 또 다른 별명은 샌드위치 세대이다.



글 서동일

충남대학교 산학연구본부장
seodi@cnu.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듀크대학교 니콜라스(Nicholas) 환경대학원 방문 및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물포럼 과학기술위원장, 대한환경공학회 영문편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공계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머리 아프게 공부해 봐야 부모들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분위기도 한몫을 하는 것 같다.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은 수업에서 마음놓고 강의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원도 진학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입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걱정한다. 어쩔 수 없이 외국학생들을 영입



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기업에서 활동할 이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에 맡긴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요새 같은 시대에 61세는 절대로 노인이 아니다. 일을 그만 둘 나이는 더욱이 아니다. 국가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이공계 7080의 역할에 대해 또 이들의 활용방법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을 대체할 기술적 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7080들이 평생을 바쳐 일해왔던 분야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일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들이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방법은 다만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현실에 노출되는 것보다 착실한 준비와 짜임새 있는 지원을 통해서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7080, 경제 발전이 왜 필요한지를 몸으로 경험하고 이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세대들이다. 이들의 공로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를 거듭거듭 당부 드린다. **ST**